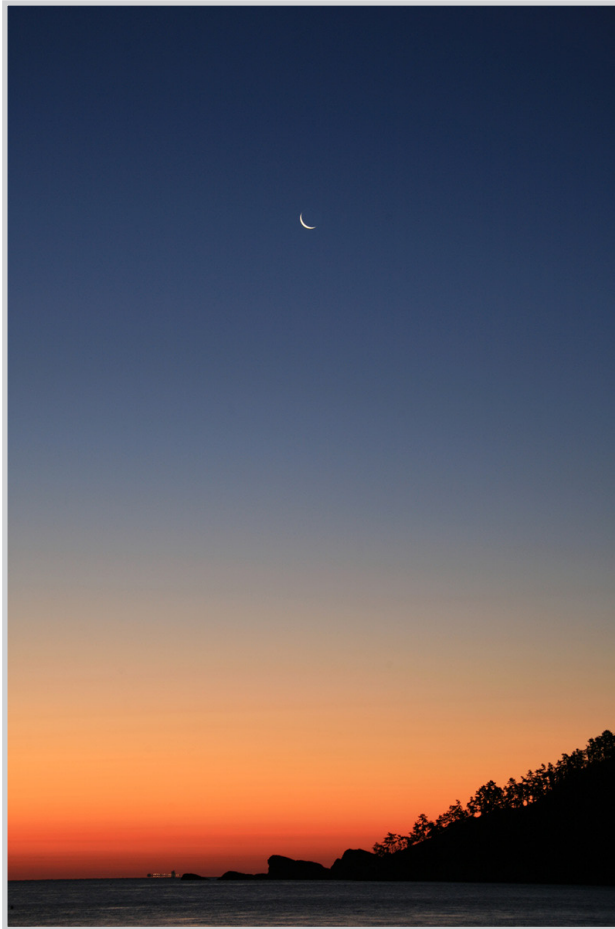


유배지 남해의 풍경

# 밤대엽초대 사진전



바다가 잠이 깨일 때

| 전시기간 : 2010. 12. 3(금)~12. 12(일)  
| 전시장소 : 남해유배문학관내 로비

# 초대의 글

박대엽 초대 사진전

그 옛날 남해는 유배의 땅이었습니다.  
절망의 발걸음으로 남해섬으로 귀양 온 선조들은  
신선들이나 모여 살 듯한 남해의 절경에 취해  
절망을 딛고 초월, 아니 더 나아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.  
유배의 땅, 유배의 바다를 카메라에 담아낸 촌놈 박대엽.  
그는 남해의 땅끝, 미륵을 도운 땅 미조에서부터  
750리 바닷길을 돌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.  
겨울의 초입에 남해유배문학관 개관을 기념하여  
촌 향기 가득한 박대엽 작가의 초대전에  
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.

남해유배문학관장 김 성 철



## 초대작가

박 대 엽

### 약력

- 1954년생
- 1968년 미조초등학교 졸업
- 1970년 미조중학교 졸업
- 1970년~1988년 화물선 선원 및 항해사
- 1988년~미조 촌놈횃집 개업
- 개인전 5회
- 전국사진공모전 다수 입상 및 입선

- 전시기간: 2010. 12. 03(금)~12. 12(일), 10일 간
- 전시장소: 남해유배문학관내 로비
- 전시작품: 보리암에서 외 24점



남해유배문학관

668-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(남변리 555)  
Tel. 055) 860-8888 / Fax. 055) 860-8889  
Yubae.namhae.go.kr